

Korea University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KUPE

*Campaign*



# THE FUTURE IS...

지성(知性)과 야성(野性)에  
글로벌·디지털 마인드까지 갖춘  
리더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미션입니다



## 새로운 60년을 개척하는 虎眼政大

리더는 멋진 꿈에 방향을 제시하고 논리를 붙여넣는 지성(知性)이 있어야 합니다.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야성(野性)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성이 없는 야성은 혼탁한 정글을 만들어낼 뿐이고 야성이 없는 지성은 공허한 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지성과 야성을 다 같이 갖추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리더다운 리더가 흔치 않은 까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의 지각변동이 끊이지 않는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시대인 21세기에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지성과 야성이 글로벌 성격도 띠고 디지털 속성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덕목은 더 이상 덕목이 될 수 없습니다.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호안정대(虎眼政大)가 지성과 야성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녹여 넣는 대장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정의·진리에 헌신할 것, 경계가 없는 통합된 지식을 창조할 것, 이론과 정책을 잇는 실천적 지성이 될 것, 글로벌·디지털 혁신에 나설 것, 이것이 차세대 리더가 정경대학에서 가꾸어야 할 기본 덕목이자 새로운 핵심 역량입니다.

인프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부터 혁신하지 않고서는 절대 21세기 리더를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리더가 스스로 논리를 세우고 지혜를 키울 다학문·학제간 과정과 튜토리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 과학이론을 공공정책과 연계시켜 학술과 실천 사이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도 설계해야 합니다. 클릭 하나로 세계를 품는 스마트 캠퍼스도 새로이 들어서야 합니다. 인재를 정경대학으로 끌어들이는 서포터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이 아직 길이 나지 않은 곳을 먼저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길을 보고 다른 이들도 새로운 미래를 꿈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 정경대학이 말아야 할 시대적 책무는 개척과 혁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장 김병국



민족과 사회의 중심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虎眼政大



정경대학이 어느덧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과 사회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만들어 가던 정경대학이 21세기에도 우리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보면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18세기 말 James Watt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20세기 말 반도체와 컴퓨터의 전자 혁명으로 촉발된 정보화는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취임한 저는 이처럼 어려운 현실과 당당히 맞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학이 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20세기의 인재양성에 맞추어져 있는 교육·행정시스템을 개혁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미래를 여는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장정에 정경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0년간 이룩한 성과를 반석으로 하여,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선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심어주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안(虎眼)으로 불리는 정경대학의 별칭처럼 고려대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눈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홍빛 철쭉으로 물든 안암의 동산에서 지혜와 용맹이 석탑처럼 켜켜이 쌓인 정경대학의 힘찬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정경대학의 미래 비전이 고대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여 우리나라와 인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정경대학이 힘차게 웅비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 KUPE ASPIRATIONS

자유 · 정의 · 진리에 헌신하라.

경계 없는 통합된 지식을 창조하라.

이론과 정책을 서로 잇는 실천하는 지성이 되라.

글로벌 · 디지털 혁신에 나서라.

다학문 · 학제간 과정과 튜토리얼 시스템을 구축하라.

클릭 하나로 세계를 품는 스마트 캠퍼스를 세우라.

인재를 끌어들이고 서포터 체계를 갖추라.



THE KUPE CAMPAIGN GOAL

*50 Billion won*



# KUPE STRATEGY

정경대학이 가꾸어온 멋진 자산들이  
**21세기 글로벌·디지털 시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유·정의·진리에 헌신하라, 경계 없는 통합된 지식을 창조하라, 이론과 정책을  
있는 실천하는 지성이 되라, 글로벌·디지털 혁신에 나서라, 이 네 가지가 정경  
대학이 차세대 리더에게 불어넣는 덕목입니다.

정경대학은 이러한 미션을 달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학술 세계에서 첨단 연구로 선두를 달리는 교수진이  
있습니다. 민족고대를 꿈꾸고 글로벌 고대를 열망하는 웅대한 학풍이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핵심 학문분야인 정치학·경제학·행정학·통계학이  
있습니다. 이들 네 가지가 정경대학이 가진 자산입니다.

관건은 미션(꿈)과 자산(수단)을 서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정경대학  
에서는 이들 구슬을 꿰는 실로서 사회과학 정책연구소 설립과 학부 혁신에 주목  
하고 있습니다. 정경대학의 미션과 자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정책연구이고,  
실천적 지성과 선비적 야성이 싹트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 대학 학부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권한과 책임이 개별 학과에 흩어져 있는 분권적 거버넌스 구조  
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과체제를 넘어선 통합된 관점에서 사회과학 정책  
연구소를 경영하고 정경대학 학부혁신을 이끌어갈 다학문·학제간·초(超)학과  
추진단이 새로이 짜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기획전략이 정경대학 자산을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 정경대학 미션을 힘차게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 SOCIAL SCIE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종화 / 경제학과 교수

## SSPRI Social Scie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 실천적 지성. 선비적 야성. 세상을 멋지게 바꾸는 사람들

#### RESEARCH

첨단 사회과학이론을 공공정책과 연계시켜 학술과 실천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경대학이 혁신·창조·실천·혁신이라는 시대적 미션에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사회과학 정책연구소가 출범하게 됩니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정책적 난제(難題)를 정조준할 것입니다. 이처럼 타깃이 높게 설정된 이상,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오직 실천적 지성과 선비적 야성을 갖대로 삼아 인재를 폭넓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전역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정경대학 교수진과 함께 정책연구로 세상을 멋지게 바꿀 석학들을 발굴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모일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 솟아나고 멋진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따로 없는 소통과 성찰의 플랫폼

#### EDUCATION

사회과학 정책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색다른 경험에서부터 싹틔웁니다. 젊은 학생들에게는 렉처 시리즈에 참여하고 차세대 학자 콜로키움과 정책포럼을 참관하는 것 자체가 리더의 덕목을 가꾸고 다학문·학제간 관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대학 교수진이 사회과학 정책연구소에 참여하면서 얻게 될 경험이 교육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교수를 실천적 지성으로

변화시키고, 교수는 학생을 차세대 리더로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언제든지 교육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석학들은 객원교수로서 정경대학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가 구축한 화상·디지털 시설도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스스로 창조적 발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지적 소통과 성찰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김두래 / 행정학과 교수

정주연 /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성주 / 통계학과 교수

남재현 / 경제학과 교수

## PAEL Public Affairs, Economics and Law

### 21세기 공공부문 리더를 키우는 다학문·학제간 과정

PAEL 과정은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의 리더를 키우는 다학문·학제간 프로그램으로서 학부 교육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목표는 정성(定性)분석과 정량(定量) 분석에 다 같이 능란한 예리한 마인드를 키우는 동시에, 문화적 상상력과 감성적 통찰력으로 글로벌·디지털 시대를 헤쳐나갈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인문학과 사회 과학을 서로 적절히 섞어 빚어낸 통합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지적 콘텐츠가 통합된 지식인 만큼 교육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학생 수를 열댓 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세미나가 대거 도입될 것입니다. 리더를 양성하는 지름길은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도 연계함으로써 혁신·창조·실천·혁신이라는 덕목이 가지는 무게를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느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인턴제도 신설될 것입니다. 학생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지름길은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공공성을 체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리더를 키우는 PAEL 과정에서는 리더를 양성하는 스쿨로 교실 못지않게 현장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 국부를 키우는 경제공학

금융상품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제는 어느 것 하나 단순히 개인과 기업에게 돌아가는 수익과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릭 하나로 수억 달러가 순식간에 이리저리 옮겨가는 국경 없는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첨단 금융공학은 국부(國富)를 지키고 키우는 경제 공학이기도 합니다.

정경대학에서 금융공학은 경제학·통계학·수학에 경영학·정보공학이 더해지는 다학문·학제간 과정이 됩니다. 거시적인 시장 변화 트렌드를 적기에 잡아내는 경제학적 통찰력, 미시적인 기업 재무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경영

학적 방법론, 거시와 미시를 다 같이 고차방정식에 담아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수학적·통계학적 상상력,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길을 열어주는 정보공학적 기술, 이 모든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에서 운영할 빅데이터 센터는 금융공학도들이 경제학적·경영학적 통찰력을 수학적·통계학적 언어로 풀어내는 실험실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정 자체가 산학연(産學硏) 협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글로벌 전문가들을 실무교수로 초빙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국·내외 여러 투자은행에 인턴으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비교정치특수과제연구(POLI 445) 수업 장면

## 튜토리얼 Tutorial System

### 스스로 생각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세미나

정경대학은 학부로까지 세미나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차세대 리더가 스스로 생각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양(量)이 질(質)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열댓명을 넘지 않는 세미나에서는 읽기·쓰기에서부터 말하기·듣기에 이르는 다양한 기초역량을 함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토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이 쌍(雙)방향에서 다(多)방향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관점이 서로 다른 이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면 발상 전환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이 확산하는 것을

더 이상 확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가 하면, 각자가 가지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견해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논리적인 비판과 감정적인 비난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도 자라나는가 하면, 익숙한 현상을 낯선 퍼즐로 바꾸어 분석역량을 키우는 지적 호기심도 싹틔웁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 없는 곳에서 모두가 스스로 자기 논거를 세우고 자기 논리를 설파할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 지혜넷 Wisdom Net

### 교실보다 더 교실다운 학생자치공간

배움은 교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순간, 지적 소통과 성찰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구축한 열린 자치(自治)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임들이 어찌면 교실보다 더 교실다운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로서 사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키우는 지적 호기심과 실천적 열정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큰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경대학에서는 학생 회에서부터 동아리에 이르는 다양한 학생단체를 “지혜넷”으로 부릅니다.

지혜넷은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장입니다. 서로 신뢰를 다지면서 더 큰 꿈에 함께 도전하는 공동체적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평생 함께 갈 소중한 벗들을 만나는 미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순수함으로 가득한 학창 시절에 다지는 우정은 가슴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정경대학은 지혜넷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공간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학생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가상 스케치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간 설계 Space Plan

프로그램 혁신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학문·학제간 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키려면, 학제·학과를 넘어서서 연구실을 기능에 따라 클러스터 형태로 재배열해야 합니다. 이론이 실천과 만나려면, 산학연(産學硏)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생 열댓 명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자기 논거와 논리를 키우는 튜토리얼 시스템이 도입되려면, 충분한 세미나실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세대 리더에게 어떠한 제한도 경계도 두지 않는 열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첨단 화상·디지털 플랫폼부터 넓게 깔아야 합니다. 자치공간이 학생들에게 차세대 리더로서의 덕목과 역량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넷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PAEL 과정과 금융공학 전공자에게 이론과 정책을 접목시킬 기회를 제공하려면, 렉처 시리즈에서부터 정책포럼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이 열릴 인프라로서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대학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혁신관” 건립과 “정경관”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첨단 교육·연구·봉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선배 정경인이 가슴속에 품어온 멋진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김용준 (정치외교학과 10)



정연승 / KAIST 교수(통계학과 96)



조진희 / 경희대학교 교수(행정학과 00)



김선혁 / 행정학과 교수



안성희 / 기획재정부(경제학과 05)  
이지혜 / 국토교통부(행정학과 02)  
정유진 / 보건복지부(정치외교학과 03)



박홍규 /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도희 (정치외교학과 13)



김진일 / 경제학과 교수



이용욱 /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민규 / 통계학과 교수 이만중 / 경제학과 교수 이용숙 / 행정학과 교수 김동현 / 경제학과 교수



김기화 / KBS 기자(정치외교학과 02)

КУРЕ PEOPLES

# THE FUTURE IS...

# THE KUPE

JOIN US  
TO CREATE THE FUTURE

**THE KUPE CAMPAIGN**  
THE INVESTMENT IN OUR FUTURE LEADERS

Learn more at:  
<http://hoan.korea.ac.kr>

**KUP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KU-The Future*